숨은그림찾기 < 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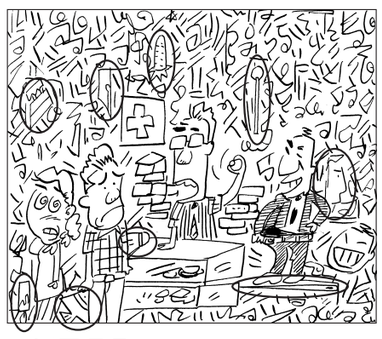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바늘, 상어, 우유팩, 못, 접시, 열대어, 사람 옆 얼굴, 펜촉, 알파벳 A자

천생연분

어느 부부가 외식을 하려고 집 밖을 나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아내 : "이를 어쩌죠. 다리미 코드를 빼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남편 : "걱정마. 나는 면도하다가 수도 꼭지를 안 잠그고 왔으니 깐 불 날 일은 없을 거야."



지난주 정답

셔틀콕, 촛불, 펜촉, 열대어, 사람 옆 얼굴, 바늘, 당근, 성냥개비, 다리미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신윤화 〈광양시 광양읍〉 김진철 〈목포시 동명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21일, 유네스코 문맹 퇴치 '세종대왕상' 창설

세종대왕상. 정식 명칭은 세종대왕 문해상(King Sejong Literacy Prize).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 있는 한국어 이름의 상이다.

매년 세계적으로 문맹퇴치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문맹퇴치 공로상의 이름으로, 유네스코 집행위원회가 지난 1989년 6월21일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맹퇴치에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주기로 결정했다.

문맹퇴치를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지난 1990년부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문맹퇴치의 날인 매년 9월 8일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18회째다. 상은 본상과 장려상의 2부문으로 수여된다. 유네스코 심사위원회가 매년 선발하는 수상 대상에게 3만 달러를 한국 정부가 상금으로 제공한다. 지난 2006년까지 17회째 수상하고 있다.

수상대상은 ▲문맹퇴치사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문맹퇴치사업 종사 ▲문맹퇴치를 위한 언론캠페인 종사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자재개발 생산 ▲문맹퇴치 관련 학술연구 ▲문맹퇴치사업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조사업무 ▲청소년의 문맹퇴치사업 참여유도 ▲문맹퇴치에 공이 있는 언론 등이다.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한글의 과학성, 간경함 등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도 이를 인정, 한글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영국 리스대학의 제프리 샘슨 교수 등 세계의 언어석학들도 한글을 '세계 유일의 자질문자로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했다.

특히 정보화 시대 한글의 가치는 더 크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뤄진 한글은 컴퓨터로 메시지를 전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일본어나 중국어 등 다른 언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하지만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인터넷 통신 언어로 인해 아름다운 우리말을 파괴하고 세대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많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 백성을 위해서다. 백성들도 제 나라 말 귀한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2001년 수상단체인 중국의 간수 티안슈이 교육위원회가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고 있는 장면.

뉴스퀴즈

69.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에서 방출된 '한국인 메이저리거 1호'인 이 선수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열어가게 됐습니다.

이 선수는 최근 휴스턴행을 전격 결정, 마이너리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 LA 다저스에서 처음 빅리거로 데뷔한 뒤 2002년 텍사스 레인저스, 2005년 샌디에이고, 올 해초 뉴욕 메츠를 거쳐 다섯 번째 팀에 몸 담게 된 것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찬호 ② 박지성 ③ 이동국 ④ 이영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0일(음 5월 6일 乙酉)

子 36년생 작은 병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48년생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가려서 행하라. 60년생 아들과 대화하고 고민을 들어보라. 72년생 부부사이에 의무를 다하고 나면 애정은 샘솟는다. 84년생 형제 부모가 도우니 모든 일이 평온하다. 행운의 숫자 : 17, 42

丑 37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지만 곧 좋아지리라. 49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諸事가 풀려간다. 61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73년생 여자의 마음이 헛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85년생 울고 싶은 일이 생기니 마음껏 울면 한 순간에 사라지리라. 행운의 숫자 : 01, 41

寅 38년생 인과 시비가 발생하니 조심 또 조심하라. 50년생 구설수가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하니 조신하게 처신하라. 62년생 자신의 폭언으로 쌓아온 명성이 걱정된다. 74년생 오랫동안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을 수다. 행운의 숫자 : 23, 43

卯 39년생 성과 情分으로 구설수가 생길 수다. 51년생 생의 후반전 다시 한번 달려보라. 63년생 들이 괴로우니 대화가 필요하다. 75년생 제 도움이 절실하니 찾아보고 청해보라 결정타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18

辰 40년생 부부간에 서로서로 살펴보라. 52년생 아내의 모습이 오늘따라 예쁘게 보인다. 64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적으리라. 76년생 삼사일언 생각하면 실수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4, 43

巳 41년생 大苦가 예상되니 굳은 마음 각오하라. 53년생 자신 재주 믿다가는 큰일을 그르친다. 65년생 들고 날 때를 정확하게 지키면 오해는 사라진다. 77년생 친한 친구일수록 말조심 행동 조심을 하라. 행운의 숫자 : 24, 31

午 42년생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일이 생긴다. 54년생 겉보기와는 다르게 쉽지가 않다. 66년생 옛 일은 잊고 화해하라 망신은 면한다. 78년생 자녀와 직장 사이에 불편사가 발생하나 측근이 도와준다. 행운의 숫자 : 12, 35

未 43년생 서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5년생 직장에서는 언행을 집에서는 조신하라. 67년생 어려운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79년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멋 내고 나가보라. 행운의 숫자 : 2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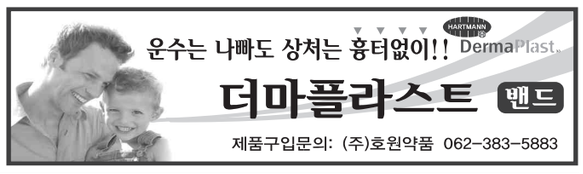
申 44년생 마무리가 안 된 일이 자신을 괴롭힌다. 56년생 지나친 욕심은 평화를 해친다. 68년생 가까운 사이에 신사는 절대로 시작도 하지마라. 80년생 고운 정 미운 정 다 생기니 올바로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21,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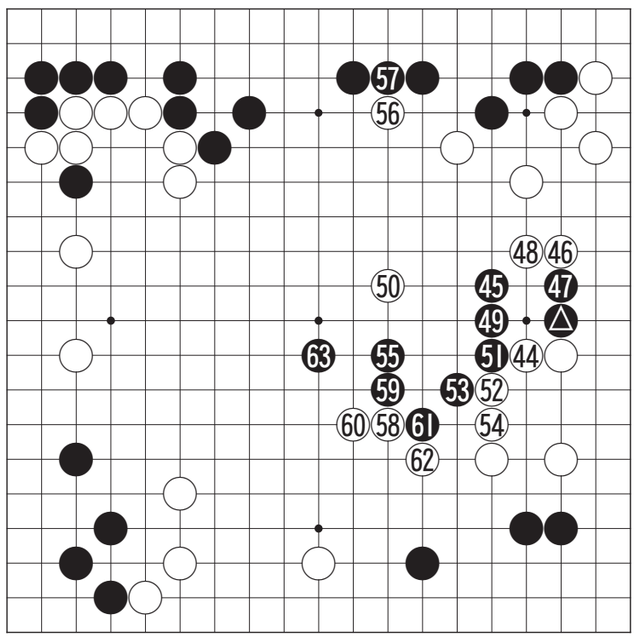
酉 45년생 자식 편에 경사가 생기고 당분간 지속된다. 57년생 보고 싶은 사람 떠나고 미운 사람 보인다. 69년생 바쁜 하루가 된다. 81년생 애인이 생길 수도 있으니 외출을 해보라. 행운의 숫자 : 09, 30

戌 46년생 분수를 지켜야 內苦가 줄어든다. 58년생 욕심을 버리라 대손이 생길 수다. 70년생 자신의 앞날에 변화가 온다. 82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여유 있게 생각하고 행하면 득재한다. 행운의 숫자 : 11, 34

亥 47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은 차려라. 59년생 시간은 지루하나 뜻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71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나타나 큰 도움을 준다. 83년생 一喜一悲가 있지만 꼭 좋지만은 않으니 과욕은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20, 3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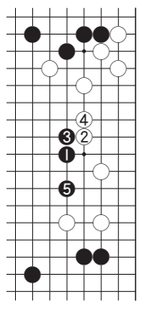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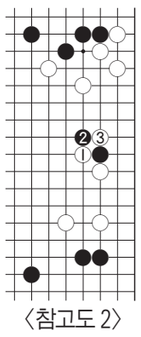
제16회 랑일배 직장대항 단체 2회전

성공한 무리수 3보(44~63)

白 유병수 5단 (포스코) 黑 전지용 5단 (조선대)



〈참고도 1〉



〈참고도 2〉

흑 △가 관전자들을 깜짝놀라게 한 격렬한 수였다. 평소의 전지용 5단 기풍으로 본다면 '참고도1'의 흑 1부터 5까지 가볍게 삭감해갈 것으로 예상했었다.

전 5단의 기세에 놀란 유병수 5단이 순한 양이 된다. 백 44가 기세에 눌린 수로 이 수로는 당연히 '참고도 2'의 백 1로 젖히고 3으로 끊어가야 했다. 이런 싸움은 상하의 백이 단단하여 흑이 무리한 싸움이다.

백이 44로 늦추자 오히려 무리수가 멋진 승부수가 되었다. 흑 45로 튀어나가서 백진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뒤늦게 백 50으로 추격하고 있으나 흑은 66으로 훨훨날아간다. 다만 흑 61은 악수교환으로 생략해야 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박승화, SK가스배서 온소진 꺾어

박승화 초단이 19일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예프로 10걸전 A조리그에서 온소진 3단을 308수 끝에 흑 2집 반으로 따돌리고 리그전적 3승 1패를 기록했다.

박승화 초단에게 패한 온소진 3단은 2째를 기록, A조 1위 확보가 어려워지게 됐다. 최근 LG배 세계기왕전 8강에 진출한 그는 대회 이후 4연패를 당하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B조는 배준희 초단이 2연승을 거둔 가운데 윤준상 6단, 김수용 2단 등이 1위 자리를 놓고 각축하고 있다. 이 대회는 만 25세, 5단 이하의 기사들만 참가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30>

The weather is likely to improve

날씨가 좋아질 것 같군요

A:Do you think tomorrow's picnic will be held inside?
B:**The weather is likely to improve.**
A:Did you listen to the weather forecast this morning?
B:Yes. They said that it'll clear up by tommorrow morning.

A:내일 피크닉은 실내에서 열릴 것 같습니까?
B:**날씨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A:오늘 아침 기상예보를 들으셨습니까?
B:네, 내일 아침 이전에 비가 갤 것이라고 말했어요.

be likely to~ : 아마 ~일 것 같다
forecast : n. 일기예보
clear up : 맑아지다. 개다
요즘 날씨는 오락가락이야.
= The weather is changeable these days.
날씨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좋겠다!
= I hope the weather stays this way.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30>

これっと言(い)ったものはないんです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지만

A:得意(とくい)の料理(りょうり)は何(なん)ですか?
B:**これっと言(い)ったものはないんですが**、焼(や)きそばなら少(すこ)し自身(じしん)がありますね。
A:焼(や)きそばですか。私大好(だいす)きですけど、一度(いちど)食(た)べて見(み)たいですね。

A:잘 하시는 요리는 뭔가요?
B:**내세울 만한 것은 없지만** 야키소바라면 조금 자신이 있지요.
A:야키소바요? 저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得意(とくい) : 숙달되어 자신이 있음을 말한다
上手(じょうず) : 보다 조금더 품격있는 표현
自身(じしん)がある : 자신이 있다
自身(じしん)がない : 자신이 없다
食(た)べて見(み)たい : 먹어 보고 싶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21>

又去逛街了

또 쇼핑 갔다 왔니?

A:我回来了!
Wǒ huí lái le!
워 훼이 라이 러!
B:**又去逛街了!** 你买了什么了?
Yòu qù guàngjiēle! nǐ mǎile shénme le?
여우 취 꾸앙 지에 러! 니 마이러 션머러?
A:我给外婆买了一件大衣。
Wǒ gěi wàipò mǎile yíjiàn dàyī。
워 게이 와이포 마이러 이지엔 따이.
B:太好了,
Tài hǎo le。
타이 하오 러
我正在想明天外婆过生日该送她什么礼物呢?
Wǒ zhèngzài xiǎng míngtiān wàipò guò shēngrì gāi sòng tā shéme lǐwù ne?
워 쩡 짜이 시앙 밍 티엔 와이포 꾸워 셩르 까이 쏭 타 션머 리우 너?

A: 저 왔어요.
B: **또 쇼핑 갔다 왔구나!** 너 무얼 샀니?
A: 난 외할머니께 드릴 코트 한 벌을 샀어.
B: 참 잘했다, 나는 내일 외할머니 생신날 어떤 선물 드려야 할지 생각중인데 뭐가 좋을까?

逛街 「guàngjiē」 쇼핑하다
正在 「zhèngzài」 마침 (~하고 있는 중이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47>

天方地軸 (천방지축)

하늘 천, 모 방, 땅 지, 굴대 축

천방지축(天方地軸)은 천방(天方)과 지축(地軸)이 합쳐진 말이다. 천방은 하늘의 한 구석을 가리키는 말이고, 지축(地軸)은 지구의 회전축, 즉 남극과 북극을 관통하는 축을 말한다. 따라서 천방지축(天方地軸)이란 '하늘 한 구석으로 갔다 땅 속으로 갔다 하면서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당황해서 허둥지둥 날뛰는 모양'이다.

현재는 이 말의 뜻이 조금씩 전이(轉移)되어 '남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앞 뒤 가리지 않고 제 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 모양'을 가리키고, '어쩔 줄 모르고 어리석게 무작정 덤벼드는 모양'을 나타내기도 한다.

천방지축과 비슷한 말에 '천방지방(天方地方)'이 있는데, 가요 '하늘나라 우리님'의 노래가사 중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늘은 매서웁고 흰 눈이 가득한 날 / 사랑하는 님 찾으러 천상에 올라갈재 / 신 벗어 손에 쥐고 버선 벗어 품에 품고 / 곤비님비 님비곤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한 번도 쉬지 않고 허위허위 올라가니 / 버선 벗은 발이랑은 쓰리지 아니한데"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